

#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마태 10,1.5 참조)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 오늘의 전례: 연중 제11주일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이 할 일은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려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 • 제1독서

탈출 19,2-6ㄱ

### • 제2독서

로마 5,6-11

### • 복음

마태 9,36-10,8

### • 영성체송

시편 27(26),4

• **입당송** 시편 27(26),7,9 참조

• **화답송** 시편 100(99),1-2.3.5(◎ 3ㄷ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복음환호송** 마르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길을 찾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 간, 국가 간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세상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3.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나라의 분단으로 고향을 떠나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이산가족과 북향민들을 보살피시어, 헤어짐의 아픔을 지닌 모든 이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아켄 전담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아켄의 목자로 세우신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 [아캠] 전담 사제 사목 방문



- ▶ 방 문 : 카타르 공동체
- ▶ 장 소 : 6 월 10일 (수) ~ 6 월 13 일 (토)

## [아캠] 성지순례 일정 변경 안내

지난 미국-이란 간 전쟁의 영향으로 9월 순례 예정인 메주고리예로의 항공편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성지순례 일정도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9 월 11 일(금) ~ 9 월 17 일(목) 6박 7일

→ 변경 후 : 9 월 11 일(금) ~ 9 월 16 일(수) 5박 6일



다만, 줄어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성지순례를 통해 하느님 그리고 성모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캠] 전담 사제 휴가 일정



아캠 전담 사제이신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휴가 일정입니다.

- ▶ 여름 휴가 : 7월 3일(금) ~ 8월 2일(주일)

※ 이 기간 중에도 아부다비 / 두바이 공동체의 한인 '미사'는 지속됩니다.

※ '아캠 주보'는 이 기간 중 발행되지 않으며, 연중 제19주일 주보(8월 9일, 266호)부터 발행이 재개됩니다.

## [교종 레오 14세] 6월 기도 지향

6월: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Congratulations.

중동한인  
AKCCME 가톨릭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아부다비 공동체>: 세례성사 및 첫영성체



전유찬 플로렌시오  
최혜직 라파엘  
세례 및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엄지호 가브리엘  
임유진 라파엘라  
정아영 율리아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6월 6일 (토) 12:3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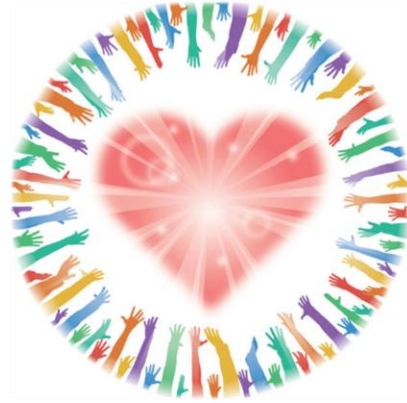
<두바이 공동체>: 공동기금 마련 바자회



6월 9일 (화) 10:30 am

## '26 아캠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Take Joy



'Together'

in Praying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캠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캠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아캠 온라인 기도 모임

-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캠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캠 전담 사제 **김성인 미카엘 아미.**

## 다미아노의 클라라,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



The year of St. Francis of Assisi

1193년 성녀 클라라는 아씨시의 성 루피노 대성당 근처에 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182년에 태어난 성 프란치스코와 거의 띠동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라의 집안은 귀족파로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며 지지하고 있었고, 프란치스코는 중간 계급으로 아씨시의 자치 도시제를 외치는 집안이었습니니다.

1206년 프란치스코가 재판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아씨시를 떠난 사건은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클라라에게도 프란치스코의 회개 방법과 하느님을 향한 행동은 큰 충격과 함께 감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211년,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감화된 클라라는 것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클라라는 1212년 성지주일인 3월 18일 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 아씨시 성에서 2km 떨어진 포르치운콜라(Porziuncola) 경당으로 내려가 성 프란치스코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봉헌하며 회개의 표식으로 귀족의 옷을 벗고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큰딸이 지난밤 저지른 행동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머물던 수녀원으로 찾아와 딸을 강제로라도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완강히 제대보를 붙잡고 잘린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자신이 하느님의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 제대 오른쪽에는 클라라와 수녀들

이 기도했던 나무로 만들어진 가대가 있는 작은 기도소가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나무로 만든 독서대와 기도소는 클라라가 살아 있을 당시의 시절로 우리를 안내하는 듯합니다. 수도원의 심장인 이 장소는 우리에게 기도란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귀 기울임이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애독과 묵상임을 알려줍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 클라라가 이곳에서 촛불을 밝히며 자매들을 초대했듯이, 이 장소는 우리를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 2층으로 올라가면 클라라에게 봉헌된 경당이 있습니다. 클라라는 1224년부터 선종할 때까지 29년간 병상에 머물며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기도하고 미사드릴 수 있도록 잠자리 가까이 경당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였기 때문입니다. 제대 앞 바닥에는 성 다미아노 성당 가대가 보이는 사각 나무로 된 덮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의 용도는 등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당까지 내려갈 수 없었던 클라라가 미사 소리를 들으며, 이 구멍을 통해 사제가 올려주는 성체를 영하였을 것입니다.

클라라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수도원 안에서만 그 현존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264년 볼세나의 성체 기적보다 앞서, 믿는 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까지 그 현존을 드러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 황제(Friedrich II, 1197~1250 재위)는 사라센인들을 시켜 수녀원과 아씨시를 공

## <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 - 5



The year of St. Francis of Assisi

격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클라라는 방패처럼 성체를 모시고 나와 수녀원과 도시를 지켰고, 사라센 사람들은 성체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보고 놀라 달아났다고 전해집니다.

성체의 기적은 수도원의 공동 식당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클라라와 자매들이 검소한 식사를 했던 이 장소에는 초창기에 사용했던 아무 장식 없는 투박한 나무 의자와 식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식탁 오른쪽 끝에 꽃이 놓여있는 자리가 클라라가 건강이 허락할 때 내려와 식사하였던 곳입니다. 1228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시성식 후 이 식당에서 클라라와 함께 자리했고, 성녀에게 식사 전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클라라가 십자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자, 그곳에 있던 빵 하나하나에 십자 표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빵의 기적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드러내심이었습니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식사 시간이 다 되었지만, 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걱정과 함께 오늘은 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는 그 한 덩어리 빵마저 반은 잘라서 프란치스코 형제들에게 보냈고 나머지 반은 50조각으로 잘라 식탁에 앉아 있는 각 자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성녀의 강한 믿음과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바구니에서 꺼낸 50조각의 빵은 온전한 빵처럼 풍성해졌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 지붕 아래에는 클라라와 자매들이 잠을 잤던 침실이 있습니다. 천장에 기와가 보이는 이 장소는 겨울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웠을 것이고, 여름엔 뜨거운 열기가 한증막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 사이에서 잠을 청하던 성 프란치스코를 떠

올리면, 병으로 고통받던 클라라에게는 이것조차 사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29년이라는 시간을 병상에 머물며 수도 생활을 했지만, 클라라는 클라라회에 맞는 특별한 영성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느님 체험 속에서 얻은 규칙서를 오랜 시간 동안 작성하며 끈기 있게 인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종하기 이틀 전 여자 수도회 최초로 인준된 규칙서를 받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형제회와 도미니코 수도회를 인준한 인노첸시오 3세 교황 (Innocentius III, 1198~1216 재위)이 1215년 제4차 라테란공의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수도회 인준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탄생할 다양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자 수도회를 위한 하느님 은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선종 27년째인 1253년 8월 11일 저녁, 클라라는 “저를 창조하신 주님, 당신은 축복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린 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씨시의 작은 꽃이 된 클라라는 오늘도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씨시의 클라라 대성당 전경. 이관술씨 제공.

<글 :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 가톨릭 신문 발췌>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겨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겨레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 온 겨레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평화의 모후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 2026 아캠 공용 줌(zoom) 사용 일정 (6/09, 2026 업데이트)

- 공용 줌은 아캠 내 모든 한인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단체는 '아캠 사무국'에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 아캠 공용 줌(zoom) 정기 사용 일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 일	UAE 시간	모 임	비 고
주 일			
월요일	8:30 ~10	아부다비 수험생 기도	
	14 ~15:30	두바이 수험생 기도	
화요일	11~12:30	쿠웨이트 성경 읽기 모임	
수요일	21~22	아캠 온라인 목주기도	2026. 12월 31일까지
목요일	20~21	두바이 레지오 마리애	사막의 별 Pr. (단장: 052. 879. 4841)
금요일			
토요일			

(6/9: 두바이 레지오 마리애 시간 변경)

 <p><b>ARAKO</b> 두바이 한인 부동산</p> <p>Sale / Rent/ Off Plan 상담</p>   <p>오픈챗</p> <p><b>최은정 셀레나</b> (055. 360. 0733)</p>	<p><b>SUZE</b>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Handmade</li> <li>• 100% Fresh Fruits</li> <li>• 100% Organic Sugar</li> </ul> <p>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p> <p><b>박혜정 안젤라</b> (058. 580. 2814) /  : angela7204</p>	<p><b>GULF KOREAN TIMES</b> 걸프 코리아 타임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li> <li>•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amp; 마케팅 기회 제공</li> <li>•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li> </ul> <p><b>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b> (+971) 50 461 3991 /  : @gktmedia</p>
--	--	--